

# 돋움·도약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 전북도·경진원, 참여기업 네트워크 통한 기술교류 저변 확대 위해 교류회 열어 지속 성장 위한 과제수행 컨설팅·내년도 과제사업 위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2일부터 13일 완주군 상관면 소재 관백숲 상관리조트에서 2023 돋움·도약기업 네트워크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돋움·도약기업 육성사업은 전북만의 차별화된 기업육성 프로그램인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사업의 일환이다. 각 육성체계는 돋움기업·도약기업·선도기업으로 기업규모와 성장 단계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역에 단단하고 안정적인 기술혁신 토대 마련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창출해내 기술경쟁력 극대화를 실현하며, 사업화 지원등의 중장기적인 지원으로 단계별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2일부터 13일 상관면 소재 관백숲 상관리조트에서 2023 돋움·도약기업 네트워크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돋움·도약기업 네트워크 교류회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기술 교류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 기술개발 중점연구방향 확립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내수를 넘어선 해외수출을 위한 '중동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 성공전략' 특강도 마련돼 각 기업간 협력체계 기반 마련과 성장사다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수행 컨설팅, 수출지원시스템, 기업 애로해소 시스템 안내 및 내년도 과제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함께 진행했다.

윤여봉 경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활성화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연계, 기업주체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성장사다리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 K-푸드 수출 확대 저탄소 식생활 확산

### aT, CJ푸드빌 미국법인과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커머스에 위치한 CJ푸드빌 미국법인(대표 안현수)을 방문해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J푸드빌은 2004년 푸레쥬르 미국에 처음 진출하며 첫 해외사업을 운영했으며, 2009년부터 현지 가맹 사업을 시작해 최근 100호점을 돌파했다.

특히, 미국 특유의 투박한 베이커리 제품과 차별화해 촉촉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생크림 케이크와 부드러운 우유 크림빵 등으로 현지에서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켜 한국산 생지 등 관련 K-푸드 수출 증가에도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CJ푸드빌 미국법인 공장과 물류창고 등 시설을 둘러본 후 안현수 대표와 K-베이커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사장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 미국 사회에서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키며, K-푸드 세계화에 앞장서는 CJ푸드빌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 K-베이커리 소비 저변과 연관 K-푸드 수출을 확대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사인 오른쪽)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커머스에 위치한 CJ푸드빌 미국법인을 방문해 안현수 미국법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확산에도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 LX,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세종시 간 갈등 해소 나섰다

### 공유지 갈등 무료측량으로 중재 오래리 지적사업본부장, 현장서 한센인 주거안정 위해 기부도

한센인이 개간한 토지 소유권 문제로 촉발된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조정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무료측량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 충광마을 박행남 이장,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갈등이 불거진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고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LX공사에 경제복원측량을 의뢰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LX공사는 행복나눔측량을 통해 한센인 충광마을의 재정부담 해소시켜 주기로 했다.

행복나눔측량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충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사인 왼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 세종 한센인촌 충광마을 박행남 대표, 세종 한센인촌 충광마을 박우택 이사장이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 대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갖고 조정회의에 서명했다.

광마을 현장 브리핑 현장에서 충광마을 박행남 이장에 한센인 주거안정을 위해 기부금도 전달했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70년 숙원사업이었던 강원도 안구군 무주지 토지분쟁도 공사의 드론측량을 통해 700일 만에 해결했던 선례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집단 민원

해결과 소외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전북은행, 외국인 금융생활 편의 증진

### 비대면 상품 가입 서비스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금융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 비대면 상품 가입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증 포함)이 필요하며, JB뱅크에서 이용할 외국어를 설정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내발 미안바,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5개 국가 언어를 지원 중이며,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외국인 금융거래 서비스 부문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은 물론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대출신청 및 비대면 전자금융 가입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그동안 금융거래가 어려웠던 외국인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JB뱅크에서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법무부에서 1금융권에 우선 적용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등록 외국인의 신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발맞춰 그동안 금융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오는 11월 중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를 추가하고, 지원되는 외국어를 점차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